

겻세마네의 쓴 잔(눅76)

성경말씀: 눅22:39-53

3년 반 공생애 완수,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행하시고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꿈, 새 상속 언약을 주심(20)

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, 심지어 12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심(22)
이 때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는 일로 다툼(24), 베드로의 호언장담(33), 주님의 말씀(34), 회복(32)
돌아가실 때까지 연속되는 실망, 기도 부탁, 고통, 잠자고 있음, 꾸짖지 않고 나가심, 예수님의 마음

예수님의 두려움

지금까지 두려움이 없는 삶: 40일 금식, 마귀의 시험, 공생애 시작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함

마귀들려 무덤에서 사는 흉악한 자, 종교지도자들 향해 무섭게 책망, 성전 청소

폭풍우, 변화산 사건 이후 자신의 죽음도 담담하게 알리며 두려움 없이 달려옴(눅9:51)

마지막 만찬, 유월절 어린양을 먹으면서도 담담함, 그런데 겻세마네 상황은 이와 매우 다름
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두려움(히5:7),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죽는다. 왜?

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별별 떠는 것과 다르다. 거룩한 두려움, <겻세마네의 쓴 잔>

겻세마네 동산

결전의 날, 만찬 이후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심(39, 눅21:37)

그래서 가롯 유다는 그분이 거기 계신 줄 알고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로 옴(47)

마26:36, 장소는 겻세마네(올리브 짜는 도구), 요18:1-2, 그곳은 동산 그래서 겻세마네 동산, garden

왜 동산인가? 인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됨(창2:7-25), 동산에서 죄를 지음(창3)

하나님의 구속 사역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, 영원한 에덴동산(겔28:13)

이 사이에 겻세마네 동산이 놓임: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받음

성경은 두 아담 이야기

첫 아담: 에덴동산에서 반역하고 죄를 지음

둘째 아담: 겻세마네동산에서 하나님의 잔을 받고 복종하며 구속 사역 완수(롬5:12, 18-19, 21)

세 제자 동행

8 제자들을 한 군데 남겨두고 베드로, 요한 야보고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심(막14:32-33).

이 셋은 중요한 때에 그분과 함께함

1. 아이로의 딸(눅8:41-56), 2. 변화산(눅9:28-36), 3. 겻세마네

캠벨 모르간의 설명: 세 번 모두 죽음과 상관있다.

1. 아이로의 딸: 죽음을 물리침, 2. 변화산: 죽음을 통해 영화롭게 됨, 3. 겻세마네: 죽음에 승복
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음,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음, 베드로는 중간에서 가장 큰 고통, 십자가 고통

이 세 사건은 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었을 것이다.

이들에게 주시는 교훈: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(40). 기도는 인간이기에 필요하다. 눅18:1

예수님의 잔

마가복음 표현(14:33-36), 엄청난 고뇌와 고통, 이 잔이라고 함(눅22:42)

4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3번 잔에 대해 기도하신다. 잔으로 인해 두려워하신다.

기독교의 예수님: 참 사람이시요, 참 하나님이다.

하나님의 측면: 모든 것을 아신다. 고난을 아신다. 부활할 것을 아신다.

그럼에도 육신을 가지 사람이기에 그분의 혼은 육체 닥칠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경험한다.

히4:14-16

이제 조금 지나면 붙잡히고 수염이 뜯기고 침 뱉음을 당하고 결국 허위 사실로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
죽는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.

죽는 순간 그분은 저주가 되어, 죄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배척당한다(고후5:21; 갈3:13).

이것 즉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/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 잔이다(죽음 No).

요18:11“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?”

잔은 대개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. 비유적인 의미의 잔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떤 이에게 주어진 것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(시11:6; 16:5) 생명과 은혜와도 관련이 있고(시 23:5)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(출29:40; 시116:13). 이것은 또한 심한 고통과도 상관이 있으며(시75:8; 사51:17) 죽음의 쓴 맛을 나타내기도 한다(시75:8).

겻세마네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강하게 한다.

천사(시34:7; 히1:14). 천사들까지 동원하신다.

천사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. 그분을 돕고 우리를 돕는다.

“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특히 성도에게는 겻세마네의 고통이 있다. 동시에 겻세마네의 천사도 있다.”
그 기도의 결과: 맘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(44). 의사 누가의 기록

의학적으로 ‘헤마티드로시스’(Hematidrosis), 극도의 고통이 임할 때 혈액성 맘이 분출되는 현상
접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(히5:7). 죄로 인한 둘째 사망(롬6:23; 고후5:21)

이 만큼 죄 문제가 심각함. 죄의 삶은 사망이다.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

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긴다.

기도의 대상: 아버지(42),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. 아버지가 있는가?

아버지의 뜻이면 잔을 치워 주십시오: 잔은 곧 죄와 저주 고통, 사실 그분과 상관없다.

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.

세 번이나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시면 그때마다 이들은 피곤해서 잠을 잔다(45-46). 우리와 동일하다.

다시 한 번 “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.” 예수님의 긍휼

유다의 키스

유다는 수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옴,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, 폭력으로 나올 줄 앎.

주님의 제자 유다가 주님께 다가와 키스로 그분을 배신한다.

키스: 마음의 기쁨이 입으로 분출되는 것, 좋은 것, 그 당시 스승과 제자들, 성도들끼리

그런데 많은 경우 키스가 배신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.

주님의 실망의 말씀(48), 이것도 주님이 마실 잔의 또 다른 요소

베드로의 칼

제자들이 상황을 오판함(38), 베드로가 성급히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름(50)

베드로는 자기 말 확증(22:33), 겻세마네로 갈 때 또 확신함(마26:30-35)

기도해야 할 때 자고 들어야 할 때 말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 자랑하고 항복해야 할 때 싸운다.

잘못된 무기로 원수가 아닌 자와 싸운다.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의 전쟁이 아니다(고후10:3-6).

예수님의 광야 시험, 말씀의 검(엡6:17)

주님은 잔을 마시려 하는데 싸우려 한다. 주님의 태도와 영 반대다(요18:36).

진실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.

하나님의 진리, 이 땅의 진리는 총이나 칼로 햇불 같은 무질서로 전달되지 않는다. 잠시

참으라(51):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. 베드로도 살리고 말고도 살린다(마지막 기적).

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는 결국 세상을 살린다.

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: 사람을 살리는 사람, 교회, 사역이 되어야 한다.

예수님은 천사들 열두 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다(마26:53), 군단은 6,000명

천사 하나가 18만 오천 명을 죽일 수 있다(왕하19:35).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초림의 목적이 아니다.

우리의 결단

0. 왜 예수님이 몸서리 칠 정도로 신음하시는가?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.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

1. 유다처럼 키스로 배신의 삶을 살 것인가? 키스인가?

2. 베드로처럼 육신의 무기로 사람을 죽이며 살 것인가? 칼인가?

3.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? 잔인가?

4.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신음하며 기도하신다(롬8:26), 말로 할 수 없는 신음